

왜곡언론에 대한 올바른 비판

한겨레 신문은 최근 시대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신문이고 동아일보의 일제 시대 이후로 면면히 이어 내려온 신문이다. 지난 8월 20일자 두 신문은 박노해 시인의 사형 구형 소식과 함께 팔막한 논평을 실었다. 양 신문사 모두 나름대로 객관적 명분과 소신을 가지고 다루었지만 사건에 대한 해석과 전달 방법이 너무 달랐다. 한 사건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왜곡 보도 왜곡 보도 하지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알 수 없다. 있는 것을 없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꾸미는 것만이 왜곡은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사건을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는 것이다.

어떤 신문은 큼지막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취급한 기사를 다른 신문에선 신문 한 귀퉁이에 보일락말락 내보내기도 한다. 물론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신문사에 달렸다.

일전에 선배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어떤 언론이든 그 언론은 특정 계층을 대변하기 마련이라고.

신문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신문이든 왜곡 보도를 안 하는 신문은 없다. 어차피 신문의 일차적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애기를 대화주보사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양: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기능은 여론 형성이고 그 여론은 독자의 기호와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자라온 한다는 것부터가 우순은 일이다.

결국 남은 것은 선택하는 쪽이다.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정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한다.

대학생의 세상 바라보기가 힘

들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 않을까. 새하얀 것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은 그래서 착잡하기만 하다.

최창근
(국문·1)

이기적 만인對 고립된 일인의 항변

—‘은마는...’ 독서로 보낸 알찬 방학

길고도(?) 무료한 방학을 그나마 의미있게 보내려는 작은 몸짓의 하나로 나는 안영효씨의 ‘은마는 오지 않는다’라는 책을 들었다. 오빠의 추천으로 읽게 된 ‘한안 전쟁’이 가슴에 남아 그간 책을 하나 더 읽고 싶다는 호기심도 있었는데, 이 책은 나의 마음을 정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만인대 일인’의 싸움이라 칭한 것은 나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김원희가 쓴 이 책에 대한 해

설의 소재물이다. 비록 내가 지은 제목은 아니지만 이 말은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낀 것, 더할 수 없이 딱맞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의 정확한 표현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당황스럽고 비관해야 할 사실은, 무의식적인 모든 사람들의 증오 혹은 무관심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인데, 주인공 일인에게는 전쟁이 터진 후 평화

김정미
(정외·1)

북도 천정에 붙은 공조

흡연후 공증질서지켜야

고등학생중 70% 이상이 한번쯤은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여성흡연연구도 높아 가고 있다.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데 강의중간의 휴식시간에 복도에 나가보면 담배하나씩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흡연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닥에 꺾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대로 끄지않은 담배를 휴지통에 버리는 것도 그렇고 간혹가다 천정에다 공조를 마구 던져 붙이는 것도 그렇다.

특히 천정에다 공조를 던져 붙이는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미관상보기에도 안 좋고 청소하기에도 매우 불편하다고 한다. 앞으로 학생들의 성숙한 자세를 요구하고 싶다.

최지훈
(국문·1)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들

8월 주제
‘통일’

統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듯 다하여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냐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정말 우리 모두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잘 표현한 노래인것 같다. 그러기에 그동안 국제적인 탈냉전과 화해의 분위기에 맞춰 최근 얼마동안에 빈번하게 있었던 여러 분야에서의 남과 북의 만남에서 이 노래가 함창으로 열창되곤 했던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장일순
(사회대교수·사회학)

특히 얼마전에 있었던 청소년 축구대회를 우승을 하여 서로 열악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때의 감격이라든가, 소년의 알바나 중국의 연변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곳 여러 교도들과 만나 서로 겨냥고 이 노래를 합창하는것들을 TV를 통해 볼때마다 정말 모든 이념과 체제 보다 민족의 통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것 같다.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들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 없이 닥치는 통일 후의 더 많은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해 우리는 확실한 통일의 준비를 해야겠다.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일 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과업이다”

종교인대로 체육인은 체육인대로 예술인은 예술인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어쨌든 광범위하게 서로 만나 대화하고 서로가 형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하여 함께 아리랑도 부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

일본 가전업체 한국진출

정부·업계·국민의 대처방안 절실

최근 국내 가전업체에서는 일본의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라옥스사 단독매장 확보를 놓고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라옥스사는 일본내 양관신문업계에서 5·6위권의 중형업체로 그동안 한국가전전대점협회에 기술제휴를 제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가전업체들은 비상에 걸렸던 것이다.

일본 유통업체의 매장 하나 설치 움직임을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국내 가전업체가 유통시장 개방에 대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이다. 제품력, 기술, 가격, 마케팅등 모든 면에서 월등히 우세한 선진 외국제품이 밀려올 경우 국내 가전시장 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업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가전업체인 소니사가 이미 현지법인을 설립, 착실히 진출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것 같다.

캐나다의 경우 일본 업체들은 미국, 유럽이나 동남아등에 진출하면서 우선 합작이나 기술제휴 등의 형식을 취한 뒤 결국에는 합병, 제2부문까지 장악한 사례가 적지 않다. 80년대 초까지 십여개에 달했던 T·V제조업체가 1백%국립하고 일본업체 3개사만이 남은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소니 인터내셔널 코리아사로 대표되는 일본 가전업체들의 한국진출은 이미 시작되었다. 과연 국내 업체가 대만이나 캐나다와 같은 운명에 빠질 것인지 아닌지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 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상은 ‘주간조선’에서 발췌·요약한 글이다. 성능이 좋고 고장이 잘 안나서 사용한다는 사용자에게 무어라고 할말은 없다. 비단 소니뿐 아니라 양담배나 파자류까지 외제제품이 범람되어 있다. 농촌에서는 U·R때문에 걱정이란 한 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기에 장래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누구의 잘못든 잘못되어진 일은 탓하기 보다는 반성하고 정정하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젊은이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성민
(문문·1)

교수동정

주동준 교수 도미

▲주동준(문리대·화학)교수 = 다음달 1일부터 92년 8월31일까지 cornell대학화학에서 ‘유기화학 연구 수행 화학중독 및 메카니즘’ 연구를 위해 미국방문 ▲이경섭(한의학)교수=오는 9월3일부터 92년 3월2일까지 하버드대 Brigham and women's Hospital의 교환교수로 미국방문

습득

본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학생증=▲김현자(영문·88) ▲박성근(생물·89) ▲선지훈(지리·91) ▲김성규(사학·91) ▲오선애(국문·88) ▲노용득(철학·85) ▲서정호(생물·91) ▲임상순(영문·86) ▲김정길(사학·86) ▲박정민(영문·91) ▲장재봉(사학·87) ▲김지홍(수학·86) ▲서정철(물리·87) ▲연경아(수학·87) ▲남기표(영문·86) ▲원종우(철학·89) ▲손동현(영어·90) ▲백성만(법학·83) ▲박준순(법학·90) ▲홍성욱(법학·84) ▲심형보(법학·87) ▲류성수(법학·89) ▲오영환(법학·91) ▲백기찬(법학·87) ▲이동춘(경영·85) ▲오광진(경영·91) ▲안현식(경영·90) ▲김진형(정치·91) ▲김명환(경제·86) ▲김홍대(경제·85) ▲이배용(무역·85) ▲허준석(경제·86) ▲이미선(경영·89) ▲황운기(경영·91) ▲정길중(무역·91) ▲이상희(무역·88) ▲조미선(영교·88) ▲박선화(미교·90) ▲이선영(의상·91) ▲안미영(가관·87) ▲김영아(의예·89) ▲임경옥(의예·86) ▲고용호(의예·90) ▲신종선(한의예·87) ▲홍세영(한의예·91) ▲정선경(치의·87) ▲김혜진(체육·88) ▲김진(기약·91) ▲지갑=▲박 일(수학·87) ▲김귀성(생물·89) ▲한재형(치의·91) ▲이재풍(치의학·86) ◆도서대출증=▲이수경(철학·88) ▲현정아(사학·88) ▲강창

석(경제·85) 【수원캠퍼스】 ◆학생증=▲황재식(사학·91) ▲유동선(무역·90) ▲김용제(행정·91) ▲유충현(환경·83) ▲김미연(수학·90)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 ▲백철호(물리·3) ▲이은정(물리) ▲홍해정(국문·1) ▲오태호(국문·3) ▲김용현(국문·2) ▲황명훈(국문·2) 【수원캠퍼스】 ▲성준희(영문·1) ▲강비오(기계·3) ▲최남일(기계·2) ▲김상욱(토목·2) ▲이주환(화공·3) 장 혁(전산·1) ▲황치호(체육·4) ▲강기호(행정·2) ▲전영희(화학·1) ▲배연수

동문모임

제주항우회

【서울캠퍼스】 ▲배명·진선교=오는 30일 오후5시 수화장 ▲성광·명영고=오는 31일 오후6시 심포니 ▲독성·동성고=오는 30일 오후5시 체육대 녹원 【수원캠퍼스】 ▲조대부고=오는 27일 오후5시30분 공대후계실 ▲송실·송의=오는 30일 오후5시30분 공대후계실 ▲영복=오는 30일 오후5시30분 공대후계실 ▲광주임고·전남여고=오는 30일 오후5시30분 공대후계실 ▲천안중앙고=오는 30일 오후5시30분 공대후계실 ▲제주항우회=오는 30일 오후5시30분 공대257호강의실

의상학과 일일차집

의상학과에서는 오는 29일 ‘홀로서기’에서 학생회비보조를 위한 일일차집을 10시부터 6시까지 연다.

무역학과 모꼬지

서울캠퍼스 무역학과 2년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셋터에서 점심여대 무역학과 2년과 함께 모꼬지를 가진다. 수원캠퍼스 무역학과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천마산 수동캠퍼스에서 편의 화합과 진전을 위해 전체 모꼬지를 가진다.

약대 전대회 참가

약대 학생회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남대에서 전국약대연합(이하, 전약연) 전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의대 정기총회 개최

한의대 학생회는 오는 9월3일 오전11시에 정경대 111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입운영위 인사와 1학기결산, 총노선(2학기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며, 의료일원화와 행림제를 안건으로 한다.

무한대의 첨단 자동차기술에 도전하는 사람들 — 자동차 한국의 꿈을 펼쳐갑니다.

미래 자동차기술의 이정표를 세운다. 현대 마복리연구소 연구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없을까? 상급한 내음이 풍기는 무공해 연료가 있으면 좋을텐데... 음속을 초월하는 초고속 자동차는 언제쯤 타 볼 수 있을까?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듯 인간의 행복과 풍요로운 생활을 열어간다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는 현대 마복리연구소 사람들— 이들이 바로 꿈속에서도 태산처럼 수많은 연구과제들을 하나 둘 풀어가며 자동차 한국의 꿈을 펼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동차 한국의 내일을 밝히는 연구소의 불빛 —

인제공학과 첨단 기술의 조화로 이상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마복리연구소 연구부—

이곳의 연구는 크게 4부문에 나누어집니다. ① 엔진의 성능 향상과 수송, 알콜 등 대체연료의 개발을 담당하는 열유체부문 ② 엔진 경량화, 저소음·무공해를 연구하는 구조해석부문 ③ 연료분사, 점화시각의 전자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자부문 ④ 플라스틱, 세라믹 등 초경량, 고강성의 신소재 개발과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재료부문이 새롭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래의 자동차, 꿈의 자동차 시대를 앞당겨 가는 연구소의 불빛은 자못 밝고 있습니다.

바 은 미래를 창조해갈 역사의 참주인은 바로 그대 —

지금의 인간의 행복과 후손에게 물려줄 풍요로운 내일을 힘 모아 창조해 가야 할 때입니다.

진리의 길에서도 자칫 편견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는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위대한 장점으로 바꿀 줄 아는 젊은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여러분은 역사의 참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

